

이백 <대봉부>(大鵬賦) 역주와 해제

徐盛*, 趙成千**

<목 차>

1. 서론
2. 번역과 주석
3. 해제
4. 결론

1. 서론

이백은 “중국 역사상 가장 선명한 성격을 지닌 시인”¹⁾으로 중국고전시의 정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문장에도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의 문장이 뛰어난 것은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와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 등이 여러 역대 명문 선집에 실린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백은 부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같은 촉(蜀) 지방 출신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양웅(揚雄)에 경도하여, 그가 자신의 시문 중에 사마상여 또는 그의 작품에 대해 언급한 것이 20여 회나 되며, 양웅 또는 그의 작품에 대해 언급한 것도 10회나 된다.²⁾ 또 이백은 영왕 이린의 반란에 가담한 죄목으로

* 배재대 기초교양교육부 겸임교수

** 을지대 교양학부 교수 (교신저자, sczhao1960@gmail.com)

1) 林庚은 이백을 “歷史上一個最具有鮮明性格的詩人”이라고 정의하였다. 《詩人李白》,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50쪽 참조.

2) 余恕誠, <論賦與詩在李白筆下的交融>, 《安慶師範學院學報》, 2007-3.

심양의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오자, 군사를 이끌고 온 장호(張鎬)에게 757년에 <재상 장호께 드림>(贈張相鎬)이란 시를 증정하면서, 그 제2수에서 “나는 열 다섯에 기이한 책을 보았고, 부를 쓰면 사마상여보다 뛰어났습니다”(十五觀奇書, 作賦凌相如.)고 자부하였다.³⁾ 동시대 시인 독고급(獨孤及)이 753년 송주(宋州)에서 조남(曹南)으로 떠나는 이백을 보내며 쓴 <조남으로 가는 이백을 보내며 서문>(送李白之曹南序)에서도 “저번에 그대가 장안에 들어갔을 때, 주상께서 <자허부>와 같이 뛰어난 부를 열람하시고는 사마상여와 같은 그대와 같은 시대에 계심을 기뻐하셨다”(曩子之入秦也, 上方覽子虛之賦, 喜相同時.)고 하였다.⁴⁾ 또 이양빙(李陽氷)은 <<초당집> 서문>(草堂集序)에서 “하·은·주 삼대 이래 <시경>과 <이소> 이후, 굴원과 송옥을 몰아내고, 양웅과 사마상여를 채찍질하며 천 년에 걸쳐 독보적인 존재는 오로지 이백 한 사람 뿐이다”(自三代以來, 風騷之後, 馳驅屈宋, 鞭撻揚馬, 千載獨步, 惟公一人.)고 하였다.⁵⁾ 이러한 기록을 보면 이백 자신이 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종을 비롯하여 동시대 사람들도 이백의 부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붕부>(大鵬賦)는 이백의 현존하는 부(賦) 8수 가운데 대표작으로, 이백의 사상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 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송촉본(宋蜀本)에서는 권25 ‘고부(古賦) 8수’ 가운데 <명당부>(明堂賦)와 <대렵부>(大獵賦)에 이어 세 번째에 실렸지만, 청대 왕기(王琦)는 권1의 첫 번째에 둬으로써 그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⁶⁾ 이 부는 이백의 나이 25세 때 지금의 호북성 강릉시에서 당시 79세의 도사 사마승정(司馬承禎)을 만났을 때 지었다. 사마승정은 젊은 이백의 비범한 풍도와 호방한 시문을 보고는 “선풍도골이 있어 팔극의 밖에서 함께 정신의 여행을 할 만하다”(有仙風道骨,⁷⁾ 可與神遊八極之表)고 칭찬하였다. 이백은 당대 최고의 도사가

3) [송]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권10, 成都: 巴蜀書社, 1985.

4) [청]董誥 等編, 《全唐文》 권388, 北京: 中華書局, 1996.

5) [송]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권1, 成都: 巴蜀書社, 1985.

6) [청]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부여한 높은 평가에 고무되어 《장자》(莊子)에 나오는 대봉(大鵬)과 《신이경》(神異經)에 나오는 희유조(希有鳥)를 빌어 서로의 정신세계와 인격을 이해하고 인정하였으며, 메추라기와 같은 잡새들이 알지 못하는 드높고 초월적인 세계로의 지향과 정신의 자유로운 활보를 형상화하였다. 처음에는 <대봉우희유조부>(大鵬遇希有鳥賦)라는 제목으로 지었으나, 천보 연간에 이를 고쳐 지금 볼 수 있는 <대봉부>로 완성하였다.

본고는 <대봉부>를 서문은 물론 본문을 일곱 문단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내용 중에는 《장자》, 《산해경》, 《신이경》 등 각종 신화에 나오는 비유적 이미지는 물론, 천상의 환경과 영물의 모습을 형용하고 우주와 신화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어휘들이 대거 동원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문헌의 근거와 함께 부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원문은 송촉본(宋蜀本)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이문(異文)은 송촉본이 제시한 것만 괄호 안에 넣는 데 그쳐, 특별히 근거 없이 개작한 후세 판본의 문자는 될수록 배제하였다. 덧붙여 작품의 제작 배경 및 의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解題) 부분에서 정리하였다. 번역은 직역을 기본으로 하되 의미가 순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의 언어적 질서 속에서 맥락과 의미를 살리는 의역을 보조적으로 하였다. 부(賦)는 산문과 운문의 요소가 모두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도 운율을 고려한 번역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4음보를 위주로 하는 한국어 번역은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의미를 최대한 충실히 살리기 위해 산문의 형식을 채용하였다.

2. 번역과 주석

子昔於江陵見天台司馬子微,⁸⁾ 謂予有仙風道骨,⁹⁾ 可與神遊八極之表,¹⁰⁾ 因著《大鵬遇希有鳥賦》以自廣.¹¹⁾ 此賦已傳於世, 往往人間見之. 悔其少作, 未窮宏達之旨,¹²⁾ 中年棄之. 及讀《晉書》, 睹阮宣子《大鵬讚》,¹³⁾ 鄙心陋之.¹⁴⁾ 遂更

- 8) 江陵(강릉): 지금의 호북성 강릉시. 당대에는 산남동도(山南東道)에 속했으며, 형주(荊州) 강릉부(江陵府)였다. 742년(친보 원년) 강릉군(江陵郡)으로 변경하였다가 758년(건원 원년) 다시 형주대도독부(荊州大都督府)로 변경하였다. ○ 司馬子微(사마자미): 사마승정(司馬承禎). 자(字)가 자미(子微)이다. 당대의 유명한 도사. 처음에는 천태산(天台山, 지금의 절강성 천태현)에 은거했으며 호를 백운자(白雲子)라 하였다. 무후(武后)와 중종(中宗) 때는 조정에서 정초를 해도 응하지 않다가 예종(睿宗)과 현종(玄宗) 때 조정의 부름에 입경하였다. 현종은 721년 사마승정을 불러 직접 법록(法錄)을 받았고, 727년 다시 불러 왕옥산(王屋山) 승경지에 단실(壇室)을 지어주었다. 735년(89세) 졸.
- 9) 仙風道骨(선풍도골): 신선의 풍모와 도사의 골상.
- 10) 神遊(신유): 정신의 여행. 사람이 상상이나 꿈 등을 통해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노닐. 《열자》<황제>(黃帝)에 신유(神遊)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황제가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화서씨(華胥氏)의 나라에 갔다. 화서씨의 나라는 엄주의 서쪽, 태주의 북쪽에 있는데 중국에서 몇 천 리나 떨어져 있는지 모른다. 배나 수레 또는 다리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정신의 여행’(神游)이다.”(《黃帝》晝寢而夢, 遊於華胥氏之國. 華胥氏之國在兪州之西, 台州之北, 不知斯齊國幾千萬里. 蓋非舟車足力之所及, 神游而已.) 또 유협(劉鑿)의 《문심조룡》(文心雕龍)<신사>(神思)에도 “사물과 정신이 함께 어울려 논다”(物與神遊)는 표현이 있다. ○ 八極之表(팔극지표): 인간 세상의 밖. 팔극은 팔방의 끝. 《회남자》<추형훈>(墜形訓)에 구주(九州)의 밖에 팔인(八殫)이 있고, 팔인의 밖에 팔굉(八紘)이 있고, 팔굉의 밖에 팔극(八極)이 있다고 하였다.
- 11) 希有鳥(희유조): 신화에 나오는 새 이름. 《신이경》(神異經)<중황경>(中荒經)에 관련 기록이 있다. “곤륜산에 큰 새가 있는데 이름은 희유(希有)이다. 남으로 날아갈 때 왼쪽 날개를 펼치면 동왕공을 덮고 오른쪽 날개를 펼치면 서왕모를 덮는다. 등 위의 작은 부분엔 깃이 없는데, 일만 구천 리가 된다. 서왕모는 한 해에 한 번 날개 위에 올라가 동왕공을 만난다.”(崑崙之山[……]有大鳥, 名曰希有. 南向, 張左翼覆東王公, 右翼覆西王母, 背上小處無羽, 一萬九千里. 西王母歲登翼上, 會東王公也.) 여기서는 사마승정을 비유하였다. <대봉우희유조부>는 ‘대봉이 희유 새를 만난다’는 뜻이다. ○ 自廣(자광):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다. 여기서는 자부하다.
- 12) 宏達(굉달): 재주가 많고 식견이 통달함.
- 13) 阮宣子(완선자): 완수(阮脩). 자(字) 선자(宣子)이다 서진(西晉)의 문인으로 완함(阮咸)의 조카이다. 성격이 방달하고, 술을 좋아했으며, 현담에 뛰어났고, 《주역》과 《노자》 등 현리(玄理)에 정통했다. 현재 문장 2편과 시 1수가 전한다. 《진서》에 실린 <대봉찬>(大鵬讚)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푸르고 푸른 대봉이 북평에서 태어나니, 정령의 비늘을 빌려 신령의 조화로 생겨났네. 구름 같은 날개에 산과 같은 형상이라, 바닷물을 치

記憶, 多將舊本不同.¹⁵⁾ 今復存手集,¹⁶⁾ 豈敢傳諸作者? 庶可示之子弟而已.¹⁷⁾ 其辭曰:

내가 예전에 강릉에서 천태산 도사 사마승정(司馬承禎)을 만났는데, 나에게 선풍도골이 있어 팔극의 밖에서 함께 정신의 여행을 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대봉우희유조부>(大鵬遇希有鳥賦)를 지어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이 부(賦)는 세상에 전해진 후 세간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젊었을 때 지은 작품이 광달한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해 불만이었기에 중년에는 이를 폐기하였다. 《진서》(晉書)를 읽다가 완수(阮脩)가 지은 <대봉찬>(大鵬讚)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가 지은 것을 비루하게 여겼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지으니 예전에 지은 것과 많이 달라졌다. 지금 수고본에 다시 넣으니 어찌 감히 여러 문인들에게 전하려는 것이겠는가. 다만 후배들에게 보이고자 할 따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華老仙(一作仙老),¹⁸⁾ 發天機于漆園;¹⁹⁾ 吐崢嶸之高論,²⁰⁾ 開浩蕩之奇言.

고 올라 태풍을 따라 날아갔지. 삼시간에 일어나 등에는 태청을 엮고, 천지에 뜻을 두었으니 궁정을 낮추어보네. 까치와 비둘기 비웃고 메추라기 무시하지만, 세상을 초월해 높이 날아가지 그 마음 아는 자 없으라.”(蒼蒼大鵬, 誕自北溟. 假精靈鱗, 神化以生. 如雲之翼, 如山之形. 海運水擊, 扶搖上征. 翕然層舉, 背負太清. 志存天地, 不屑唐庭. 鸞鳩仰笑, 尺鷃所輕. 超世高逝, 莫知其情.)

- 14) 鄙心(비심): 비열한 마음.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부른 말. ○ 陋之(루지): 이(자신의 작품)를 비루하다고 여기다.
- 15) 將(장): ~과. ○ 舊本(구본): 이전의 작품. <대봉우희유조부>(大鵬遇希有鳥賦)를 가리킨다.
- 16) 手集(수집): 손으로 써서 만든 문집.
- 17) 庶可(서가): 다행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의 뜻을 드러낸다. ○ 子弟(자제): 아들과 동생. 후배들. 후세 사람들. ○ 而已(이이): ~할 따름이다.
- 18) 南華老仙(남화로선): 전국시대 송나라의 장주(莊周)를 가리킨다. 《사기》<노장신한열전>에 “장자는 몽 사람이다. 이름이 주(周)이며 일찍이 몽 지방의 칠원리(漆園吏)가 되었다.”(莊子者, 蒙人也. 名周, 周嘗爲蒙漆園吏.)고 하였다. 당나라 현종 때인 742년에 장주를 남화진인(南華真人)에 봉하였다.
- 19) 天機(천기): 천성으로 타고난 영민함. 또는 하늘의 기밀. ○ 漆園(칠원): 고대의 지명. 구제적인 소재지에 대해선 하남성 상구시(商丘市) 북쪽, 산둥성 하택(荷澤) 북쪽, 안휘성 정현(定縣) 동쪽 등 이설이 많다. 《사기》의 ‘몽칠원리(蒙漆園吏)에 대해 칠원은 지명이

徵至(一作志)怪于齊諧,²¹⁾ 談北溟之有魚, 吾不知幾千里, 其名曰鯤。化成大鵬, 質凝胚渾。²²⁾ 脫鬢鬣於海島,²³⁾ 張羽毛於天門。²⁴⁾ 刷渤海之春流,²⁵⁾ 晞扶桑之朝暾。²⁶⁾ 烜赫於宇宙,²⁷⁾ 憑陵乎崑崙。²⁸⁾ 一鼓一舞, 煙濛沙昏。五嶽爲之震落,²⁹⁾ 百川爲之崩奔。

아니며, 몽읍(蒙邑)에서 관리를 위해 칠을 하는 일을 맡았다는 설도 있다.

- 20) 崑嶸(징영): 산이 높고 험한 모양. 여기서의 말이 과감하게 불거져 나온 기세와 표현을 비유한다.
- 21) 徵(징): 인용하다. ○ 至怪(지괴): 지극히 괴이하다. 志怪로 쓴다면 ‘괴이한 일을 기록하다’는 뜻. ○ 齊諧(제해): 책 이름. 또는 사람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 22) 質凝(질응): 체질이 응결하다. ○ 胚渾(배혼):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동 상태. 여기서는 곧이 대봉으로 변하면서 아직 형상이 갖추어지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
- 23) 鬢鬣(기렵): 원뜻은 말의 갈기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물고기의 등지느러미와 수염. 이백의 <고풍 59수> 제3수에 <진시황이 천지를 쓸어내니>(秦皇掃六合)에도 “진시황이 쇠뇌로 바다의 물고기를 쏘니, 큰 고래는 참으로 거대한 산 같아. 이마와 코는 오악처럼 높고, 파도를 일으키며 구름과 천둥을 뿜어내었지. 지느러미와 수염이 푸른 하늘을 가리니, 봉래산을 어찌 볼 수 있으랴”(連弩射海魚, 長鯨正崔嵬. 鬣象五嶽, 揚波噴雲雷. 鬢鬣蔽青天, 何由睹蓬萊?)는 구절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였다.
- 24) 天門(천문): 천궁의 대문. 고대인들은 하늘은 아홉 겹으로 되어 있고, 매 겹으로 들어갈 때마다 대문을 지나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 25) 渤海(발해): 발해(渤海)를 가리킨다. 사마상여(司馬相如) <자허부>(子虛賦)에 “발해에서 뜨고 맹저에서 헤엄친다”(浮渤海, 游孟諸)는 말이 있다. <초학기>(初學記)에 “동해의 한 부분을 발해라 하는데, 이 때문에 동해도 함께 발해라고 부르며, 또 이들을 통칭하여 창해라고 한다.”(東海之別有渤海, 故東海共稱渤海, 又通謂之滄海。)고 하였다. ○ 春流(춘류): 춘수(春水). 봄 강물.
- 26) 晞(희): 마르다. 여기서는 말리다. ○ 扶桑(부상): 고대 신화에 나오는 나무로 바다 건너에 있다. <십주기>(十洲記)에 “부상은 바다 가운데 있으며 크기가 수천 장이 되고 둘레가 일천여 위(圍)가 된다. 두 줄기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해가 나온다”(扶桑在大海中, 樹長數千丈, 一千餘圍. 兩幹同根, 更相依倚, 日所出處。)고 하였다. 굴원의 <초사> <이소>에 “함지에서 말에게 물 먹이고, 부상에 말고삐를 매어 두네”(飲余馬於咸池兮, 總余轡乎扶桑.)란 구절이 있다. ○ 朝暾(조돈): 아침에 막 떠오르는 태양.
- 27) 烜赫(훤혁): 불길이 드센 모양. 명성이 혁혁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 28) 憑陵(빙릉): 침범하다. 다가가다. ○ 崑崙(곤륜): 곤륜산. 신화에 나오는 산. 서쪽 끝에 있으며 하늘로 통한다고 한다. <박물지>(博物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곤륜산은 너비와 폭이 만 일천 리이며, 신물(神物)들이 생겨나는 곳이자 성인(聖人)과 신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오색의 구름이 나오고 오색의 강물이 흐른다. 그 샘물이 동남쪽으로 흘러 중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름을 ‘하’(河)라고 한다.”(崑崙從廣萬一千里, 神物之所生, 聖人神仙之所集, 五色雲氣, 五色之流水, 其泉東南流入中國. 名爲河也.)
- 29) 五嶽(오악): 고대 중국에서 방위와 결부된 다섯 개의 주요한 산. 동악은 태산(泰山, 산동성 泰安), 남악은 험산(衡山, 호남성 衡陽), 서악은 화산(華山, 섬서성 華陰), 북악은 항산(恒山, 산서성 渾源), 중악은 숭산(嵩山, 하남성 登封)이다.

남화(南華)의 신선 장주(莊周)가 칠원(漆園)에서 천부적 영기(靈氣)를 발휘하여, 산악처럼 드높은 담론을 토하고 바다처럼 호탕하고 범상치 않은 말을 펼쳤다. 《제해》(齊諧)로부터 괴이한 일을 인용하여,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크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름을 곤(鯤)이라 했다. 대봉(大鵬)으로 변할 때 바탕이 형성되었으나 배아는 아직 혼돈 상태더니, 바닷가 섬에서 지느러미와 수염을 벗고 천궁의 문 앞에서 날개를 펼쳤다. 발해의 봄 바닷물에서 깃털을 씻고, 부상(扶桑) 나무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에 몸을 말렸다. 우주를 환히 비추며 곤륜산에 우뚝 섰다. 한 번 날개 치고 한 번 춤추니 안개가 일어나고 모래가 하늘을 뒤덮으며, 오악이 이 때문에 흔들리다 무너지고 모든 강물이 이 때문에 거세게 내달렸다.

乃蹶厚地,³⁰⁾ 揭太清,³¹⁾ 亘層霄,³²⁾ 突重溟.³³⁾ 激三千以崛起, 向九萬而迅征. 背嶽大山(一作虛)之崔嵬,³⁴⁾ 翼舉長雲之縱橫. 左廻右旋, 倏陰忽明.³⁵⁾ 歷汗漫以夭矯,³⁶⁾ 狃閭闔之崢嶸.³⁷⁾ 簸鴻蒙,³⁸⁾ 扇雷霆. 斗轉而天動,³⁹⁾ 山搖而海傾. 怒無所搏, 雄無所爭, 固可想像其勢, 髣髴其形.⁴⁰⁾

30) 蹶(궐): 밟다. 차다.

31) 揭(계): 높이 들다. ○ 太清(태청): 하늘. 도교에서 말하는 삼청, 즉 옥청(玉清), 상청(上清), 태청(太清)의 세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32) 亘(궁): 가로 걸치다. ○ 層霄(층소): 겹겹의 하늘. 하늘이 구중(九重)으로 되어 있음을 환기하였다.

33) 重溟(중명): 바다.

34) 嶽(업): 산이 높고 큰 모양. ○ 大山(태산): 태산. ○ 崔嵬(최외): 산이 높은 모양.

35) 倏陰忽明(속음홀명): 갑자기 어둡고 갑자기 밝다. 구름 속을 지날 때 청음(晴陰)이나 구름의 두께에 따라 명암이 달라짐을 형용하였다.

36) 汗漫(한만): 거대하여 끝이 없음. 광대무변함. 《회남자》<도응훈>(道應訓)에 “나는 구천 하늘 밖에서 광대무변과 만나기로 하였다”(吾與汗漫期於九垓之外)는 말이 있다. ○ 夭矯(요교): 구불거리며 오르는 모양.

37) 狃(공): 이르다. 도달하다. ○ 閭闔(창합): 천궁의 문.

38) 簸(파): 까부르다. ○ 鴻蒙(홍몽): 鴻濛 또는 洪濛으로도 쓴다. 천지가 열리기 전의 혼돈의 기운. 또는 자연의 근원적인 기운.

39) 斗(두): 이십팔수(二十八宿) 중의 두성(斗星). 별에 대한 총칭으로 쓰인다.

40) 髣髴(방불): 仿佛이라고도 쓴다. 비슷하다. 닮다. 마치. 대개.

이에 두터운 대지를 차고 올라, 드높은 태청(太淸)을 짊어지고, 층층의 하늘을 가로 질러, 겹겹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날개로 삼천 리의 바다를 쳐서 일어나고, 구만 리 하늘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등이 솟아오름은 저 높은 태산과 같고, 날개를 들면 긴 구름이 종횡으로 펼쳐진 듯했다. 왼쪽으로 선회하고 오른쪽으로 꺾어 날아가니, 홀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광대무변한 허공을 휘돌아 오르니 드높은 천문(天門)에 이르렀다. 태고의 혼돈의 기운을 휘젓고 우레와 천둥을 부채질하니, 별들이 돌아가고 하늘이 뒤뚱거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기울었다. 펼쳐 일어나면 마주 쳐 겨를 상대가 없고, 웅대한 기력을 뺏치면 맞서 다룰 상대가 없었다. 본디 그 기세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그 형태를 어렵듯이 형용할 수 있을 뿐이다.

若乃足縈虹蜺,⁴¹⁾ 日耀日月, 連軒沓拖,⁴²⁾ 揮霍翕忽.⁴³⁾ 噴氣則六合生雲,⁴⁴⁾ 灑毛則千里飛雪. 邈彼北荒,⁴⁵⁾ 將窮南圖.⁴⁶⁾ 運逸翰以傍擊,⁴⁷⁾ 鼓奔馳而長驅. 燭龍銜光以照物,⁴⁸⁾ 列缺施鞭而啓途.⁴⁹⁾ 塊視三山,⁵⁰⁾ 杯觀(一作看)五湖.⁵¹⁾ 其動

- 41) 若乃(약내): 그래서. 그리하여. 어떤 일을 서술한 후 다른 일로 화제를 옮길 때 쓰는 접속사. ○ 虹蜺(홍예): 무지개. 무지개가 쌍으로 나타날 때 선명한 것을 수컷이라 하여 홍(虹)이라 하고, 어두운 것을 암컷이라 하여 예(蜺)라고 했다. 《초학기》(初學記) 참조.
- 42) 連軒(연헌): 훨훨. 나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 ○ 沓拖(담타): 늘어지는 모양.
- 43) 揮霍(휘곽): 빠르게 나는 모양. ○ 翕忽(흡흡): 빠르고 민첩한 모양.
- 44) 六合(육합): 동서남북 및 하늘과 땅. 거대한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킨다.
- 45) 邈(막): 아득하다. 멀다. ○ 北荒(북황): 북방의 황량한 변방. 《산해경》에는 <대황북경>(大荒北經)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묘사가 있다.
- 46) 南圖(남도): 남방의 판도.
- 47) 逸翰(일한): 빠어난 날개. 건장하고 힘찬 날개.
- 48) 燭龍(촉룡): 신화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괴수. 서북방의 해가 없는 곳에서 살며 사람 얼굴에 용의 몸을 하고 입에는 햇불을 물고 있다. 눈을 뜨면 낮이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되며, 숨을 불면 겨울이 되고 숨을 들이쉬면 여름이 된다. 《산해경》<대황북경> 및 《회남자》<추형훈>(墜形訓) 참조.
- 49) 列缺(열결): 번개가 치다. 이백의 <몽유천모음—두고 떠나며>(夢遊天姥吟留別)에 “번개 치고 천둥 때리어, 산등성이가 무너지네”(列缺霹靂, 丘巒崩摧.)란 구절에서도 보인다. ○ 施鞭(시편): 채찍을 휘두르다. 번개의 모습을 형용하였다.
- 50) 三山(삼산):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三神山). 《사기》<봉선서>(封禪書)에 서불(徐市)이 진시황에게 상서서를 올려 동해 바다에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등 삼신산이 있는데 여기에 신선이 거주한다고 하였다.
- 51) 五湖(오호): 태호(太湖)를 중심으로 한 오월(吳越) 지방의 호수들. 다섯 군테 호수에 대

也神應, 其行也道俱. 任公見之而罷釣,⁵²⁾ 有窮不敢以彎弧.⁵³⁾ 莫不投竿失鏃,⁵⁴⁾ 仰之長吁.⁵⁵⁾

발에는 무지개가 감기고, 두 눈은 해와 달처럼 빛나는데, 훤히 유연히 비행하다가 경쾌하고 빠르게 날아갔다. 입김을 내뿜으니 천지 사방에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고, 깃털을 터니 천 리 땅에 눈발이 날렸다. 아득한 저 북방의 황막한 지역을 날고, 장차 남방의 끝까지 가려고 하였다. 빼어난 날개를 휘저어 양편을 치고, 폭풍을 일으키며 멀리 내달았다. 촉룡(燭龍)이 햇불을 물어 만물을 비추고, 번개가 하늘을 갈라 채찍을 휘두르며 길을 열었다. 삼신산을 한 덩이 흙덩이로 여기고 다섯 호수를 한 잔의 물로 여겼다. 대봉의 움직임은 신령과 호응하고, 대봉의 비행은 천도(天道)와 함께 하였다. 이를 본 임공자(任公子)는 낚시를 그만 두고, 유궁국의 후예(后羿)는 활을 당기지 못하였다. 낚싯대를 내던지고 화살을 떨어뜨리지 않은 자가 없으니 그저 대봉을 올려다보며 길게 탄식하였다.

爾其雄姿壯觀,⁵⁶⁾ 塊軋河漢,⁵⁷⁾ 上摩蒼蒼,⁵⁸⁾ 下覆漫漫.⁵⁹⁾ 盤古開天而直

해서는 역대로 여러 설이 있고, 주위가 오백 리인 호수를 가리킨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국어><월어>(越語) 등 선진(先秦) 시기 전적에서 호호는 보통 태호 주위의 다섯 개 호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 따르면 “태호에는 공호, 유호, 서호 등의 이름이 있는데 곧 호호이다”(太湖中有貢湖、遊湖、胥湖等名, 是謂五湖)고 하여 태호(太湖)를 가리키기도 한다.

52) 任公(임공) 구: 거대한 고기를 잡은 임공자(任公子)마저도 대봉을 보고는 낚시를 그만 두었다. 임공자의 '투간동해'(投竿東海) 이야기에 대해선 <장자><외물>(外物)에 보인다. 임공자가 검은 동아줄에 거대한 낚시 바늘을 매달아 오십 마리 소를 미끼로 꿰었다. 이렇게 회계산에 앉아 동해에 낚싯대를 던져 매일 낚시하였다. 한 해가 다 가도록 잡는 게 없었고 미끼는 물고기들이 모두 먹어치웠다. 하루는 낚시 바늘이 해저로 빠르게 가라앉더니 갑자기 거대한 고기 등이 솟구치고 산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요동쳤다. 귀신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천리 밖까지 진동시켰다. 임공자가 대어를 갈라 건어로 만드니 절강의 동쪽에서 창오산의 북쪽까지 이어졌고, 배불리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53) 有窮(유궁): 하나라 때의 제후국 이름. 여기서는 유궁국의 군장인 후예(后羿)를 가리킨다. 후예는 활쏘기의 명수로 이와 관련된 많은 일화가 있다.

54) 投竿(투간): 낚싯대를 던지다. 낚시를 그만 두다. ○ 失鏃(실촉): 화살촉을 떨어뜨리다.

55) 長吁(장우): 길게 탄식하다. 장탄식하다.

56) 爾其(이기): ~에 이르러서는. 사부(辭賦)에서 상용하는 접속사로 다른 측면을 묘사할 때

視,⁶⁰⁾ 羲和倚日以傍歎.⁶¹⁾ 繽紛乎八荒之間,⁶²⁾ 掩映乎四海之半.⁶³⁾ 當胸臆之掩畫, 若混茫之未判.⁶⁴⁾ 忽騰覆以廻轉,⁶⁵⁾ 則霞廓而霧散.⁶⁶⁾

그 웅대하고 장관의 모습에 대해서는 강물처럼 아득하고 끝이 없었다. 위로는 푸른 하늘을 스쳐 지나고 아래로는 넓은 대지를 뒤덮었다. 반고(盤古)가 하늘을 열다가 바라보고, 회화(羲和)가 해에 기대어 감탄하였다. 팔방의 끝과 끝을 사이를 훨훨 날아가니 사해(四海)의 절반이 가리어졌다. 저 흥부에 대낮이

쓰인다.

- 57) 塊軋(앙알): 끝없이 광대무변한 모양. ○ 河漢(하한): 믿을 수 없는 과장된 말.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나는 그 말이 강물처럼 끝없이 허황하여 무서웠다”(吾驚怖其言, 猶河漢而無極也.)와 같은 용례로 본다. 河漢을 은하수로 새겨 “은하수처럼 아득하고 끝이 없었다”고 새길 수도 있다.
- 58) 摩(마): 만지다. 닿다. 접하다. ○ 蒼蒼(창창): 푸르다. 여기서는 하늘을 가리킨다.
- 59) 漫漫(만만): 끝없이 드넓은 모양. 여기서는 대지를 가리킨다.
- 60) 盤古(반고): 신화에 나오는 천지를 만든 신. 현존하는 가장 이른 언급은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222년에 지은 <위대饗記碑>(魏大饗記碑)에 나오며, 반고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는 삼국시대 오나라의 서정(徐整)이 지은 《삼오력기》(三五曆紀)에 나온다. 천지가 혼돈의 상태일 때는 달갈과 같았는데, 반고는 그 안에서 생겨났다. 일만 팔천 년이 지난 후 하늘과 땅이 열렸는데 양의 기운은 하늘이 되고 음의 기운은 땅이 되었다. 하늘은 날마다 한 장(丈)씩 높아졌고, 땅은 날마다 한 장씩 두터워졌으며, 반고의 눈도 날마다 한 장씩 커졌다. 다시 일만 팔천 년이 지나자 하늘은 지극히 높아졌고 땅은 지극히 두터워졌으며, 반고도 지극히 커졌다. 반고가 죽은 후 그의 눈은 해와 달과 별이 되고, 그의 뼈는 바위가 되고, 그의 살은 땅이 되었으며, 머리카락과 털은 숲이 되었으며, 호흡은 바람이 되었고, 몸에 있던 이(虱)는 사람이 되었다.
- 61) 羲和(회화): 신화에서 해를 싣고 다니는 여신. 매일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현거(懸車)에 태양을 싣고 공중을 운행한다. 《산해경》<대황남경>(大荒南經)에 “동남해의 밖, 감수의 사이에 회화국이 있다. 회화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다. 마침 갑연에서 해를 목욕시키고 있다. 회화는 제준(帝俊)의 아내로 열 개의 해를 낳았다”(東南海之外, 甘水之間, 有羲和之國. 有女子名曰羲和. 方浴日於甘淵. 羲和者, 帝俊之妻, 生十日.)는 기록이 있다. 또 《회남자》<천문훈>(天文訓)의 고유(高誘) 주석에서 “해를 실은 수레를 여섯 마리 용이 끌며 회화가 부린다”(日乘車, 駕以六龍, 羲和御之.)고 하였다.
- 62) 繽紛(빈분): 꽃잎이나 깃발 따위가 어지러이 뒤섞여 흔들리는 모양. ○ 八荒(팔황): 八極(팔극)이라고도 한다. 팔방의 황량한 땅 끝. 구주(九州) 밖에 사해(四海)가 있고, 그 밖에 팔황이 있다.
- 63) 掩映(엄영): 가리다. 때때로 가리고 때때로 드러내다. ○ 四海(사해): 대지 주위를 두르고 있는 사방의 바다.
- 64) 混茫(혼망): 혼돈의 상태. ○ 判(판): 나누다.
- 65) 騰覆(등복): 날아오르다가 몸을 뒤집어 날다.
- 66) 廓(곽): 광활하다. 여기서는 맑게 하다.

가려져 어두워지니, 마치 태초의 혼돈이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듯하였다. 문득
치솟아 뒤집은 후 몸을 비틀면 노을도 사라지고 안개도 걷혔다.

然後六月一息,⁶⁷⁾ 至於海濁.⁶⁸⁾ 歟翳景以橫翥,⁶⁹⁾ 逆高天而下垂. 憩乎泱泱之
野,⁷⁰⁾ 入乎汪漭之池.⁷¹⁾ 猛勢所射, 餘風所吹, 溟漲沸渭,⁷²⁾ 巖巒紛披.⁷³⁾ 天吳爲
之怵慄,⁷⁴⁾ 海若爲之躩踈.⁷⁵⁾ 巨鼇冠山而卻走,⁷⁶⁾ 長鯨騰海而下馳. 縮殼挫鬣,⁷⁷⁾
莫之敢窺. 吾亦不測其神怪之若此,⁷⁸⁾ 蓋乃造化之所爲.

그런 다음에 여섯 달에 숨을 한 번 마시고 내뿔으며 바닷가에 이르렀다. 홀
연히 해를 가리고 가로 질러 날더니, 높은 하늘을 등지고 아래로 내려갔다. 광
대무변한 들에서 쉬다가 광활한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맹렬한 기세로 쏘는
듯 나아가는 곳과 날갯짓으로 남은 바람이 부는 곳마다 바닷물이 불고 강물이

67) 一息(일식):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것을 1식(息)이라고 한다.

68) 海濁(해탁): 海湄(해미)의 오기로 본다. 바닷가.

69) 歟(홀): 갑자기. 삼시간에. 재빠르게. ○ 翳景(예경): 해를 가리면서 나타나는 그림자. ○
翥(저): 날다.

70) 泱泱(양양): 끝이 없이 아득한 모양. 드넓은 모양.

71) 汪漭(왕황): 수면이 광활한 모양. ○ 池(지): 연못. 여기서는 바다를 가리킨다.

72) 溟漲(명창): 바닷물이 불다. ○ 沸渭(비위): 渭沸(위비)와 같다. 강물이 들끓다.

73) 巖巒(암만): 바위로 이루어진 산봉우리. ○ 紛披(분피): 어지럽게 퍼지는 모양.

74) 天吳(천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호랑이 몸에 사람 얼굴로, 머리와 얼굴과 다리와
꼬리가 각각 8개이며, 등은 청황색이다. <산해경> <해외동경> (海外東經)과 <대황동
경> (大荒東經)에 보인다. ○ 怵慄(출울): 전율하다. 공포로 떠는 모양. 벌벌.

75) 海若(해약):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신. ○ 躩踈(기니): 용이 몸을 뒤틀며 움직이는 모양.
구불구불.

76) 巨鼇(거오): 전설에 나오는 거대한 자라. <열자> <탕문> (湯問)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발해의 동쪽 수만리 밖에 바다가 없는 깊은 계곡 '귀허'(歸墟)가 있고 이곳으로 모든 물줄
기가 모여드는데, 그곳에는 신선이 사는 대어(岱輿), 원호(員嶠), 방호(方壺), 영주(瀛
洲), 봉래(蓬萊) 등 서로 이어져 있지 않은 다섯 산이 조수가 흐르는 대로 위아래로 움직
였다. 천제가 이를 보고 서극(西極)으로 떠내려갈까 걱정하여 해신 우강(禹強)을 시켜 거
대한 자라(巨鼇) 15마리에게 머리를 들어 이고 있게 하였다. 3번 번갈아 6만 년에 한 번
교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다섯 산이 높이 솟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 冠(관): 머리에
쓰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77) 縮殼(축각): 자라가 머리를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다. ○ 挫鬣(좌렵): 지느러미가 끊어지
다.

78) 不測(불측): 예상하지 못하다.

들끓으며, 바위와 산들도 어지러이 흔들렸다. 천오(天吳)가 이 때문에 벌벌 떨고 해약(海若)이 이 때문에 구불거렸다. 거대한 자라도 산을 머리에 인 채 거꾸로 달아나고, 장대한 고래도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해저로 숨어들었다. 자라는 목을 움츠리고 고래는 지느러미가 부러졌으니, 누구 하나 감히 직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신령스럽고 괴이함이 이와 같은 줄 생각지도 못했으니 이는 아마도 조물주만이 만들 수 있으리라.

豈比夫蓬萊之黃鵠,⁷⁹⁾ 誇金衣與菊裳?⁸⁰⁾ 恥蒼梧之玄鳳,⁸¹⁾ 耀綵質與錦章.⁸²⁾ 既服御于靈仙,⁸³⁾ 久馴擾於池隍.⁸⁴⁾ 精衛勤苦於銜木,⁸⁵⁾ 鷓鴣悲愁乎薦鶩.⁸⁶⁾ 天鷄警曙于蟠桃,⁸⁷⁾ 跋烏斲耀於太陽.⁸⁸⁾ 不曠蕩而縱適,⁸⁹⁾ 何拘攣而守常?⁹⁰⁾ 未若

79) 蓬萊之黃鵠(봉래지황곡): 봉래산의 황곡. 봉래산은 신선이 산다는 동해의 삼신산 가운데 하나이며, 황곡은 백조와 비슷한 새이다. 여기서는 《서경잡기》(西京雜記)에 나오는, 서한 소제(昭帝) 때인 시원(始元) 원년(기원전 86년) 장안(長安) 황궁의 태액지(太液池)에 황곡이 내려왔다는 기록을 가리킨다.

80) 金衣與菊裳(금의여국상): 황금으로 만든 옷과 국화로 지은 치마. 서한 소제가 묘사한 황곡의 모습이다. 소제는 태액지에 황곡이 내려오자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다. “황곡이 날아와 건장궁에 내려오니, 가지런한 깃털에 걸음은 종종걸음, 황금으로 옷을 짓고 국화로 치마를 만들었구나.”(黃鵠飛兮下建章, 羽肅肅兮行蹢躅, 金爲衣兮黃爲裳.)

81) 蒼梧(창오): 지금의 호남성 영원현(寧遠縣) 남쪽에 소재한 구의산(九巖山). 전설에 의하면 순(舜)이 이곳에서 죽어 묻혔다고 한다. ○玄鳳(현봉): 검은색의 봉황.

82) 綵質(채질): 채색 비단과 같은 바탕. ○錦章(금장): 비단에 수놓은 꽃무늬.

83) 服御(복어): 服馭(복어)라고도 쓴다. 수레를 몰다. ○靈仙(영신): 신령과 신선. 여기서는 신선.

84) 馴擾(순요): 길들이다. ○池隍(지황): 연못과 해자. 물이 있는 곳을 池(지)라 하고 물이 없는 곳을 隍(황)이라 한다. 이로부터 ‘도시’ 또는 ‘마을’을 가리킨다.

85) 精衛(정위): 신화 속에 나오는 새 이름. 본래 염제(炎帝)의 딸로 이름이 여와(女娃)였으나 동해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죽은 후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정위라 했다. 서한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 했다. 《산해경》<북산경>(北山經) 참조.

86) 鷓鴣(원거): 봉황과 비슷한 새. 爰居(원거)라고도 쓴다. 《장자》<지락>(至樂)에 나오는 ‘노후양조’(魯侯養鳥) 이야기를 가리킨다. “예전에 바닷새가 노나라 교외에 앉았는데 노나라 왕이 수레를 보내 모셔와 종묘에서 술을 올렸다. 또 <구소>의 음악으로 기쁘게 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를 갖추어 음식을 대접했다. 바닷새는 눈이 현란하고 슬피 고기 한 점도 먹지 않고 술 한 잔도 마시지 않더니 사흘이 지나 죽었다.”(昔者海鳥止於魯郊, 魯侯御而觴之於廟, 奏《九韶》以爲樂, 具太牢以爲膳, 鳥乃眩視憂悲, 不敢食一脔, 不敢飲一杯, 三日而死。) ○薦鶩(천상): 제사에 올리는 술.

87) 天鷄(천계):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닭. 《술이기》(述異記)에 ‘동남에 도도산(桃都山)이 있고 그 위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도도이다. 가지와 가지 사이가 삼천리나 떨어져 있다. 위에는 천계가 있는데 해가 막 떠올라 이 나무를 비추면 천계가 울고, 천하의

茲鵬之逍遙，無厥類乎比方。不矜大而暴猛，每順時而行藏。參玄根以比壽，⁹¹⁾ 飲元氣以充腸。⁹²⁾ 戲陽谷而徘徊，⁹³⁾ 馮炎洲而抑揚。⁹⁴⁾

어찌 저기 금빛 옷옷과 국화 치마를 자랑하는 봉래의 황곡과 비교할 수 있오랴? 채색 비단 같은 체질과 수놓인 비단 같은 깃털을 뽐내는 창오산의 검은 봉황마저 부끄럽게 하더라. 저들은 신선에게 부림을 당하고 오랫동안 세속에 길들여졌으니, 정위(精衛)는 바다를 메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물어 옮기느라 힘이 들고, 원거(鵷鷖)는 종묘에서 술을 받았기에 슬피하고, 천계(天鷄)는 북송아나무 위에서 새벽을 알리고, 삼족오(三足鳥)는 태양 속에서 빛을 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니, 어찌하여 구속되어 정해진 규칙만 지키고 있는가? 정위와 원거, 천계와 삼족오 같은 무리들은 소요하는 대봉만 못하니, 대봉과 나란히 짝할 자가 없었다. 대봉은 자신을 위대하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용맹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매번 때에 순응하여 모습을 나타내고 감추었다. 천지의 근원적인 도(道)가 생길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주의 근본적인 기운인 원기(元氣)를 마시며 배를 채웠다. 해가 떠오르는 양곡(陽谷)에서 놀며 배회하고, 남해에 있는 염주(炎洲)에 올라 위아래를 한가하게 바라보았다.

닭들이 이에 따라 운다”고 하였다. ○ 警曙(경서): 새벽을 알리다.

88) 跋烏(준오): 태양 속에 있는 삼족오(三足鳥). 《회남자》<정신훈>(精神訓)에 “해 속에 준오(跋烏)가 있다”(日中有跋烏)는 말이 있는데, 고유(高誘)는 “삼족오를 말한다”(謂三足鳥)고 주석하였다. ○ 斲耀(절요): 빛나다.

89) 曠蕩(광탕): 광활하고 드넓다. ○ 縱適(종적): 제멋대로 마음껏 다니다.

90) 拘攣(구련): 구속하다. ○ 守常(수상): 통상의 규칙을 준수하다.

91) 玄根(현근): 형태가 없는 도(道, 진리)의 근원.

92) 元氣(원기): 혼돈의 상태에서 음양의 기운에 분리되기 전 상태의 기운. 천지 자연의 근원적인 기운. ○ 充腸(충장): 배를 채우다.

93) 陽谷(양곡): 湯谷(탕곡)이라고도 한다. 신화와 전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 해가 지는 우연(虞淵)과 상대되는 곳이다.

94) 馮(풍): 憑(빙)과 같다. 여기서는 오르다. ○ 炎洲(염주): 전설 중의 남해에 있다는 섬. 동방삭이 썼다고 전해지는 《십주기》(十洲記)에 “염주는 남해 가운데 있는데, 사방 둘레가 이천 리이다. 북쪽의 해안에서 구만 리 떨어져 있으며, 신선들이 많다”(炎洲在南海中，地方二千里。去北岸九萬里，亦多仙家.)고 하였다.

俄而希有見而謂之曰:95) “偉哉鵬乎, 此之樂也! 吾右翼掩乎西極,96) 左翼蔽乎東荒.97) 跨躡地絡,98) 周旋天綱;99) 以恍惚爲巢,100) 以虛無爲場.101) 我呼爾遊,102) 爾呼我翔.” 於是乎大鵬許之, 欣然相隨. 此二禽已登於寥廓,103) 而斥鷃之輩空見笑於藩籬.104)

얼마 후 희유조가 이를 보고는 말하였다. “위대하구나, 대봉이여!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로구나! 나는 오른쪽 날개로 서쪽 끝을 가리고 왼쪽 날개로 동쪽의 황막한 변방을 덮는다. 대지의 줄기를 가로질러 함께 밟고 하늘의 축을 두루 돌아다니며, 황홀(恍惚)을 등지로 삼고 허무(虛無)를 마당으로 삼는다네. 내가 부르면 그대가 노닐고, 그대가 부르면 내가 선회하련다.” 이에 대봉이 허락하니 서로 기쁘게 따랐다. 이들 두 마리 새가 광활한 천공을 뛰어오르니 울타리에 앉아있던 매추라기 무리들이 부질없이 비웃었다.

95) 俄而(아이): 오래지 않아. 아(俄)는 금방, 而(이)는 어기사(語氣詞)로 감탄을 표시한다.
○ 希有(희유): 신화에 나오는 새 이름. 동방삭(東方朔)의 《신이경》(神異經) <중황경> (中荒經)에서 곤륜산에 있는 큰 새의 이름을 희유(希有)라고 하였다.

96) 西極(서극): 서쪽 끝.

97) 東荒(동황): 동쪽 끝의 황막한 땅.

98) 躡(섭): 밟다. ○ 地絡(지락): 땅의 맥락. 산과 강 등을 가리킨다.

99) 周旋(주선): 주위를 맴돌다. ○ 天綱(천강): 하늘의 중심 축. 남극과 북극 등을 가리킨다.

100) 恍惚(황홀): 황惚(황홀) 또는 恍忽(황홀)이라 쓰기도 한다. 정신이 아득하고 멍한 모양.

101) 虛無(허무): 있으면서도 없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도가(道家)에서는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고정된 형상이 없는 도(道)의 특징을 이 용어로 표현하였다.

102) 我(아): 나. 대봉을 가리킨다. ○ 爾(이): 너. 희유조를 가리킨다.

103) 二禽(이금): 두 마리 새. 대봉과 희유조. ○ 寥廓(요곽): 높고 먼 모양. 여기서는 광활한 하늘.

104) 斥鷃(적안): 매추라기. 이 대목은 《장자》<소요유>의 적안소봉(斥鷃笑鵬) 대목을 환기한다. “매추라기가 이를 비웃으며 말했다. ‘저것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힘껏 뛰어 올라도 불과 몇 길 올랐다가 내려와 쑥 덩불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이 또한 최고의 비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것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斥鷃笑之曰: “彼且奚適也? 我騰躍而上, 不過數仞而下, 翱翔蓬蒿之間, 此亦飛之至也. 而彼且奚適也?”)

○ 見笑(견소): 나를 비웃다. 견(見)은 지시를 나타내는 부사로,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 피동을 나타내어 ‘(스스로) 비웃음을 당하다’라고 새길 수 있으나 적절하지 않으므로 취하지 않는다.

3. 해 제

<대봉부> (大鵬賦)는 대봉을 제재로 한 부(賦)이다. 부는 한대(漢代)에 형성된 문학 장르로 사물의 외형과 성질을 묘사하고(體物) '늘어놓기'(鋪陳)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백의 이 부 역시 《장자》<소요유> (逍遙遊)의 곤봉전시(鯤鵬展翅, 대봉이 날개를 펼치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과장하고 '늘어놓기'를 하였다. 이백은 장주(莊周)가 만들어낸 대봉의 이미지를 변주하여 천지우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백과 자유를 노래하였다.

본문은 7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전체 작품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제1단락에서는 《장자》에서 유래한 대봉의 등장을 묘사하였다. 제2단락에서는 광활한 우주를 날아오르는 대봉의 비상을 노래하였다. 제3단락에서는 삼신산을 흙덩이로 여기고 호수를 한 잔의 물로 여기는 등 천지를 뒤덮는 기세를 묘사하였다. 제4단락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반고와 회화의 신화적 공간 속에서 비행하는 거대한 모습을 형용하였다. 제5단락에서는 바다에 내려온 대봉의 모습과 이 때문에 일어나는 영향을 묘사하였다. 제6단락은 황곡, 검은 봉황, 정위, 원거, 천계, 삼족오 등 신화 속의 조류를 동원하여 비교의 수법으로 대봉의 뛰어난 힘을 극력 묘사하였다. 제7단락은 대봉이 희유조를 만나 어울리며 드높은 하늘을 비행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위와 같은 구조를 본다면 제1단락의 대봉의 탄생을 도입부로 하고, 천공으로의 비상, 대봉의 기세, 신화적 공간에서의 비행, 바다에서의 활동, 다른 조류와의 비교를 순서로 하여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나갔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제7단락에서 희유조와의 만남과 매추라기를 통한 반친(反襯)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다. 끝부분의 간결한 마감은 굴원의 <이소> (離騷)와 같이 태산이 내려올 듯 고조되다가 멈추어서면서 일어나는 효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구성이 모두 고도의 집중과 노련한 처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대붕이 희유조(希有鳥)를 만나 어울리는 장면에 대해 현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대붕은 이백 자신을 비유하고, 희유조(希有鳥)는 사마승정(司馬承禎)을 비유하는 것으로 본다. 원대 축요(祝堯)가 편찬한 《고부변체》(古賦辨體)에서는 대붕을 사마승정에, 희유조를 이백에 각각 비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백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백 시문의 일관된 작법이므로 대붕을 이백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마승정은 721년과 727년에 현종의 부름에 장안에 들어갔으며, 장구령(張九齡)이 726년 정월 남악 형산(衡山)에 제사지내러 갈 때 쓴 <남악에 올라 일을 마치고 사마 도사를 알현하며>(登南嶽事畢謁司馬道士)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725~726년 사이에 형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백이 사천의 삼협을 처음 나와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갈 때인 725년에 강릉에서 만났음을 알 수 있다. 25세의 이백과 79세의 도사 사이의 만남이었다. 이때 지은 작품이 <대붕우희유조부>(大鵬遇希有鳥賦)이다.

서문에서 “젊었을 때 지은 작품이 광달한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해 불만이었기에 중년에는 부 짓기를 그만두었다”고 하였고,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지으니 예전에 지은 것과 많이 달라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년 때의 작품을 나중에 다시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첫머리에 나오는 ‘남화노선’(南華老仙)이란 말은 장주(莊周)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 조정에서는 742년에 장주를 남화진인(南華真人)으로 봉했으므로, 재창작한 시기는 742년 이후일 것이다.

이백의 작품에서는 새가 자주 등장한다. 그의 천성이 자유롭고 자연을 좋아하기에 구속 없이 날아다니는 조류에 대해 선천적인 애호가 있었으리라 본다. <안주 배 장사께 올리는 글>(上安州裴長史書)에서도 “기이한 새를 천 마리나 길렀는데, 제가 부르면 모두 손바닥에 날아와 모이를 먹는데 전혀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養奇禽千計, 呼皆就掌取食, 了無驚猜。)고 하였다.¹⁰⁵⁾ 여기에는 과장이 있겠지만 그가 새를 좋아하고 새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기심(機心)이 없는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께 올림>(上李

105) 李白, <上安州裴長史書>, 《李太白文集》 권26, 巴蜀書社, 1985.

巖)에서 “대봉은 어느 날 바람을 따라 올랐다가 태풍을 따라 곧장 구만 리를 오른다”(大鵬一日同風起, 扶搖直上九萬里.)고 하여 자신의 포부를 비유하고, <임종가>(臨終歌)에서도 대봉의 이미지를 가져와 “중천에서 날개가 꺾이니 힘이 부쳐”(中天摧兮力不濟)라고 하여 자신이 장대한 뜻을 결국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이백에게 있어 새의 이미지는 상당히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백은 <고풍 59수>의 제33수에서도 곤봉(鯤鵬) 제재를 다루었다.

北溟有巨魚,	북명에 있는 거대한 물고기
身長數千里.	몸의 길이가 수천 리더라
仰噴三山雪,	머리 들어 숨을 뿜으면 삼신산에 눈이 내리고
橫吞百川水.	입을 벌려 들이키면 온 강물을 마신다
憑凌隨海運,	바다에서 움직이다가 높이 솟구쳐 오르고
炬赫因風起..	바람 따라 올라가 기세가 드높아라
吾觀摩天飛,	내 바라보나니, 하늘과 맞닿아 날며
九萬方未已.	구만 리를 가셔도 멈출 줄 몰라라

이백의 시문에서 조류는 약 60종이 등장하며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새는 봉황이다.¹⁰⁶⁾ 그러므로 가장 두드러진 조류 이미지는 봉황과 대봉이다. 봉황은 주로 사직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유가 사상과 관련한 경우가 많고, 대봉은 구속 없는 개성으로 대자연에 회귀하는 노장 사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¹⁰⁷⁾ 이렇게 보았을 때 <대봉부>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포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백의 정신이 형상화된 것으로 ‘자유의 찬가’라 할 수 있다.¹⁰⁸⁾

부의 말미는 《장자》<소요유>에서 메추라기가 봉새를 비웃는 척안소봉

106) 李浩, <李白詩文中的鳥類意象>, 《唐詩的美學闡釋》,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0, 263쪽.

107) 李浩, 위의 책, 265쪽.

108) 葛景春은 이백의 <대봉부>를 ‘자유의 찬가’(自由的讚歌)라고 요약하였다. 葛景春, <《大鵬賦》與《逍遙遊》>, 《天府新論》, 1987-5. 이러한 점은 楊明的 <論李白詩《大鵬賦》的主旨一兼談大鵬意象的演變>, 《中國李白研究》, 合肥: 黃山書社, 2002에서도 보인다.

(斥鴳笑鵬)의 비유를 빌려와, 매추라기가 대붕과 회유조의 드넓은 비행을 비웃는 장면으로 마무리하였다. 원래 《장자》는 대붕과 매추라기를 각각 긍정하는 제물(齊物)의 입장에서 쓴 데 비하여, 이백은 가치 관념을 개입시켜 대붕과 회유조를 긍정하고 매추라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¹⁰⁹⁾ 이백의 호매하고 표일한 문풍을 보여주는 걸작이며, 이러한 대붕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정신의 상징이자 이상적인 인격의 형상화로 세속의 가치와 예의의 구속에서 벗어나 드넓은 세계를 지향하는 정신의 비행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이백의 대표적인 부 작품 <대붕부>를 번역하고 주석을 붙였으며 해제를 가하였다. 특히 해제에서는 일곱 단락의 본문이 의도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말미의 촉급한 마무리도 일정한 효과를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대붕부>는 천마가 하늘을 나는 듯하고 대붕이 우주를 선회하는 듯 자유로운 정신에 대한 찬가로, 이백의 이상적인 정신의 경지를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백의 시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풍격 가운데 호방하고 표일한 문풍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며, 이러한 자유로운 정신의 추구는 그가 평생 동안 추구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이백의 부에 대해서는 이백 스스로 자부하기도 했지만 동시대 시인 임화(任華)는 “내 듣기로 지금 이백이 있다는데, <대붕부>와 <홍유문>(鴻猷文)은 사마상여를 비웃고, 양웅을 비웃는다지”(我聞當今有李白, 大鵬賦, 鴻猷文, 嗤長卿, 笑子雲.)라고 하여 <대붕부>의 뛰어난 점을 언급하였다.¹¹⁰⁾ 또 이백의 시

109) 청대 진홍지(陳鴻墀)는 《전당문기사》(全唐文紀事)에서 이백의 <대붕부>는 장주의 ‘제물론’(齊物論)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로 보인다. 詹鍇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에서 재인용.

문집을 처음 편집한 위호(魏顛)는 <《이한림집》 서문>(李翰林集序)에서 “<대봉부>는 당시 집집마다 한 부씩 소장하고 있었다”(大鵬賦, 時家藏一本.) 라고 하여 이백의 이 작품이 지닌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¹¹¹⁾

본 역주와 해제 작업은 이백의 <대봉부>를 국내 초역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이백을 보다 완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하리라 본다.

< 參考文獻 >

- [송]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 [원]蕭士贇,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청]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 [청]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 [청]董誥 等編,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96.
-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 郁賢皓,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 郁賢皓, 《李白選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林 庚, 《詩人李白》,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李 浩, 《唐詩的美學闡釋》,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0.
- 葛景春, <《大鵬賦》與《逍遙遊》>, 《天府新論》, 1987-5.
- 楊 明, <論李白詩《大鵬賦》的主旨—兼談大鵬意象的演變>, 《中國李白研究》, 合肥: 黃山書社, 2002.
- 余恕誠, <論賦與詩在李白筆下的交融>, 《安慶師範學院學報》, 2007-3.

110) [청]彭定求 等編, 《全唐詩》 권261, 北京: 中華書局, 1992. 校記에 大鵬賦는 大獵賦로 된 판본도 있다고 되어 있다.

111) [송]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권1, 成都: 巴蜀書社, 1985.

徐小潔, <李白《大鵬賦》的道家淵源初論>, 《河北學刊》, 2011-3.

< 中文提要 >

李白自言“十五觀奇書，作賦凌相如”。在現存八首賦作裏面，<大鵬賦>最好表現出李白天馬行空的想像和豪放不羈的個性。開元十三年(725年)李白二十五歲的時候在江陵，正好遇到要去朝南衡山的司馬承禎。司馬承禎鼓舞李白說：“你有仙風道骨，可與神遊八極之表”，於是李白制作<大鵬遇希有鳥賦>。李白中年以後改寫，更名為<大鵬賦>。賦中以大鵬比自己，以希有鳥比司馬承禎，只有希有鳥能認識大鵬，也只有大鵬能認識希有鳥。李白以《莊子》<逍遙遊>中所說的鯤鵬的形象為基礎，大力排比誇張山搖海傾的雄偉氣勢，跨躡地絡周旋天綱的無限逍遙。這無疑是追求自由精神的象徵。

<大鵬賦>除了序文以外，賦文分為七個段落：鯤鵬的誕生，天空飛翔，天動的氣勢，神話空間中的飛行，大海中的逍遙，拔類出眾的面貌，遭遇希有鳥。尤其用斥鴳之輩來反襯大鵬的遠大志向，可以說是高超的神筆。這些完整的結構更能表現出強烈效果，給人深刻的印象。

關鍵詞：李白，大鵬賦，莊子，逍遙遊，司馬承禎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28.	2014. 10. 20.	2014. 11. 7.	2014. 11. 19.	2014. 11. 30.